

| | | |
|-----------------------------------------------------------------------------------------------------------------|-------------------------------------------------------------------------------------|------------------------|
|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
| | 발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 | 문의 | 은선 활동가 010-9286-4347 |
| | 발송일 | 2022년 5월 4일 |
| 제목 |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 |
| 붙임 자료 | [붙임 1]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문 [붙임 2] 기호 0번 청소년 포스터 및 스티커 [붙임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 |

[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148,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안내 및 인사
- 노래 배우기
- 공약 이어말하기 “나는 000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다”
 - 발언 1 :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2 :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3 :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4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5 : 학습시간 줄이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6 :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7 :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새로 쓴 어린이날 선언문과 출마 선언문 낭독
- 어린이날 울동 퍼포먼스
- 종료(스티커 배포)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7. 9. 26. 출범한 전국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입법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을 통해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연령 하향, 학생인권법 발의와 같은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2022. 5. 5.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정책요구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선언과 공약 형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목: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148,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의 취지 : 새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요구(출마 퍼포먼스)를 발표한다. ‘청소년이자리홀라당’에는 단순히 정책에 지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현실에 저항의 의미가 담겨있다.

순서

- 기자회견 안내 및 인사
- 노래 배우기
- 공약 이어말하기 “나는 000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1 :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2 :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3 :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4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5 : 학습시간 줄이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6 : 성평등교육 및 스킴미투 해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7 :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새로 쓴 어린이날 선언문과 출마 선언문 낭독
- 어린이날 울동 퍼포먼스

4. 2019. 12. 27. 투표 연령이 18세로, 2021. 12. 31.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2022. 1. 11.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청소년이 투표하고, 출마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첫 지방 선거입니다.

5. 청소년의 정치 참여 통로가 확대되긴 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의 삶과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차지할 정치적 자리는 거의 없고,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공약과 정책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며 시민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새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정책요구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출마선언과 공약말하기 형태로 발표합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단순히 정책에 지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현실에 저항의 의미를 담은 ‘청소년이 자리 흘러당(黨)’이라는 당명으로 출마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학습시간 줄이기’, ‘성평등교육 및 스톨미투 해결’,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정책으로 요구하는)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7명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의 시작과 끝에는 새로 쓴 어린이날 노래도 함께 불러볼 예정입니다.

7. 100년 전 첫 번째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새 대통령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100번째 외쳐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문

[붙임 2] 기호 0번 청소년 포스터 및 스티커

[붙임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붙임 1]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비청소년 시민 여러분. 저는 어린이청소년이 배제된 선거 국면에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로 출마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922년 제 1회 어린이날에 선언되었던 어린이 인권이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사회의 모습은 어린이 인권 보장의 요구를 100년간 묵혀왔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린이날이면 다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날이라며, 대개 양육자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 이들의 행복을 삽니다. 저는 이 선물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정 여건에 따라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냥 어리고 귀엽지 않다고 여겨져 선물을 받지조차 못하며, 스스로 선물을 살 경제적 권리도 없는 중간지대의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선물로 통질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살아내는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오늘도 우리는 어린이 손님을 거부하는 노키즈존 가게, 폭언과 폭력, 두발복장규제가 만연한 학교를 봅니다. 각자도생의 사회를 따라 입시경쟁의 판을 까는 학교와 학원과 교육당국,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만연한 일터를 봅니다. 또한 청소년이 폭력적인 학교와 가정을 넘었을 때 어떠한 교육자원도, 돌봄자원도 없는 사각지대를 봅니다. 선거권/피선거권에서는 만 18세, 정당가입에서는 만 16세와 법정대리인 동의의 허들을 넘지 못한 청소년들은 나설 수조차 없는 정치판을 봅니다.

이토록 어린이청소년차별적 세상에서, 오늘은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출입이 거부되고, 학습노동에 착취되며,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사회 다방면으로 폭력적인 나이위계에 시달리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오늘 하루 선물을 들이미는 것으로 어린이날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오늘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세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학교의 폭력적인 위계문화를 뿌리뽑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몸은 그들의 것이며, 학교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몸을 세세히 규제하는 두발복장규제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생인권침해 없는 학교, 학생인권보장이 당연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여성·퀴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고 스킴미투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 보장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경쟁교육이 아닌 권리로서의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이 아니라 입시폐지입니다. 학벌계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니다. 또한 과열된 입시경쟁 속 학습노동으로부터 청소년이 해방될 수 있도록, 휴식정책을 마련하여 학습시간을 줄이고 쉼을 보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몸들이 교육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주의적·경쟁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가정을 넘어 어린이 청소년의 삶의 반경을 넓히겠습니다. 어디서든 어린 사람이 아랫사람으로 대우받지 않는 사회,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노키즈존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나이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법을 제정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교육 예산을 마땅히 그들의 몫대로 분배하겠습니다. 청소년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여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함께하는 정치가 되도록 선거권 연령을 점층적으로 하향하겠습니다. 할당제 실시, 쉬운선거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소년이자리홀라당, 청홀당은 한 표가 없는 이들의 움직임입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은 한 표가 없는 이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표가 없는 자들의 표를 외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의 해방을,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합니다.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때까지, 표를 위해 유세할 수 있을 때까지 청홀당의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의 말할 자리를 내놓아라!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장소 : 광화문 소라탑 광장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안녕!
러움!

노이즈 존
반대

학교 접근성
보장

어린이날 100주년

엘리베이터
사용/설치!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학생인권법
있는 나라!

인권 침해
없는 학교

어린이날 100주년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청소년의
swing

어린이날 100주년

당당하게
앞으로!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물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물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조직현황

1) 참여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21.09.20 현재 371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대경남지부, 전국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보호회)/ **교육공공성 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청소년인권도입 teenrights,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파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연맹 호남지역위원회**/ **문화행동 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민주청소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정감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 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육직이기는청소년센터 EXIT**/ **이러하고 인권도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에비당원협의회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사조통-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도포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지원기지원센터 명동**/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주권회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트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천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성장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

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홍천골프장대책위,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여성농민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동당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꽃길메이커, 나래(온새미 학교, 우다다학교,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노동당전남도당/ 녹색당전남도당/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중고등학생회연합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중당전남도당/ 어린이도서관연구회전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순천지회/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무지개학부모네트워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지역아동센터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중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동당충북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들레희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온갖문제연구소/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습/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턴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동당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및 참여 개인들

※ 지역제정연대 출범 지역 :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전남, 제주, 충북

2) 조직체계



○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 광노현(사)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수정(민변/법무법인 지향), 김찬(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레빗(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서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대표), 일음(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전희영(전교조 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

: 김부정(참교육학부모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민선(전교조), 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쉼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 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단 다섯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 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서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22년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 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